



예거 르쿨트르, 2023년 2월 두바이에서

스텔라 오디세이 개최

2월 한 달 동안 스위스 워치메이커 메종 예거 르쿨트르는 시간 측정의 기원이 되는 천문 현상에 경의를 표하는 스텔라 오디세이 전시회를 두바이에서 선보입니다. 전시회에서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우주의 신비를 미니어처로 담아내어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경이로움을 탐구하는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는 예거 르쿨트르 워치메이커들이 셀레스티얼 컴플리케이션을 통해 표현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며 철학적이며 독특하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우주와 인류의 유대감을 드러냅니다.

2022년 워치스 & 원더스에서 열린 스텔라 오디세이의 개막에 이어, 두바이는 세계 주요 도시 투어의 첫 번째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시회는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를 배경으로 두바이 분수의 물 위에 ‘떠 있는’ 화려한 파빌리온에서 열립니다.

예거 르쿨트르 CEO 캐서린 레니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발레드주 매뉴팩처를 공개함으로써 워치메이킹의 예술과 기술력의 비밀을 더 넓은 세계와 공유하는 것은 예거 르쿨트르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중동의 고대 문화는 시간 측정의 기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스텔라 오디세이의 월드 투어를 두바이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190년 동안 그랑 메종을 이끌어온 탁월한 혁신의 유산과 오늘날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은 계보를 뒤따라 가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탁월한 애프트모스 클락과 리베르소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185 를 포함하여, 천상에서 영감을 얻은 최신 제품 및 매뉴팩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역사적 시계를 공개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을 가상 우주여행으로 안내하는 멀티미디어 설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천체 세계의 경이로움을 예술 설치물과 다양한 감각적 경험으로 재해석하며, 그랑 메종의 창립자인 앙투안 르쿨트르의 이름을 딴 아틀리에 앙투안은 스텔라 오디세이 테마를 기반으로 한 실습 교육 워크숍을 통해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천문학적 타임키퍼의 신비를 밝히는 8 개의 챕터

스텔라 오디세이는 메인 파빌리온 내에서 천문학에서 영감을 얻은 워치메이킹의 독창적인 문화 세계를 8 개 챕터로 나누어 탐구합니다. 관람객은 먼저 시간의 기원, 시간 측정 방식에 미치는 천체 현상의 영향, 셀레스티얼 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예거 르쿨트르 전문성의 기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 개의 챕터는 각기 다른 우주 현상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최근 컬렉션 모델뿐만 아니라 진귀하고 역사적인 시계를 전시함으로써, 매뉴팩처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어떻게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재해석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컴플리케이션들은 천체 현상을 손목 위에서 직접 나타내거나 측정 및 예측합니다.

풍부한 경험

측지선 돔 아래 메인 파빌리온의 중심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디지털 쇼는 시공간의 가상 여행을 통해 무한한 공간과 137 억 년의 시간으로 데려가 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기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신비를 다섯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밝혀줍니다.

캐서린 레니에는 “다양한 몰입형 경험을 선사하는 스텔라 오디세이는 우주와 시간 측정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여 우주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해주며 아틀리에 앙투안 워크숍을 통해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전할 뿐만 아니라, Made of Makers 프로그램에 따른 두 가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시계 제작과 장인 정신, 예술 사이의 오랜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Made of Makers 는 워치메이킹 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및 장인들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공유하며 종종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크리에이티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위해, 예거 르쿨트르는 프랑스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인 기욤 마망(Guillaume Marmin)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사학자인 마티아스 지루(Matthias Giroud)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자신의 설치 작품인 *Passengers: Through Time* 을 통해 기욤 마망은 조각과 공간,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재정의하는 정교한 관계를 그려내며 빛과 소리, 움직임 표현합니다. 워크스루형 작품을 통과하는 관람객은 무한한 반사, 현기증이 날 듯 아찔한 원근법을 선사하는 설치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시간이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별빛 세계로 떠납니다. 스텔라 아틀리에를 위해 마티아스 지루는 별과 행성의 색상, 온도, 형태에서 영감을 얻고 발레드주의 흥미로운 향기와 친숙한 재료를 혼합하여, 우주를 떠올리게 하는 매우 독창적인 소프트 칵테일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천체 탐험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아틀리에 앙투안은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통해 천문학적 컴플리케이션의 경이로움과 시간 측정의 기원이 되어준 천체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 마법 같은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실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는 2023년 2월 4일 토요일부터 23일 목요일, 매일 오후 2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두바이 다운타운 두바이 분수에서 선보입니다. 티켓은 <https://online-booking.jaeger-lecoultre.com/domaine/theme12> 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예약할 수 있으며 가이드 투어도 가능합니다.

STELLAR ODYSSEY 소개

2022년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스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군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몰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